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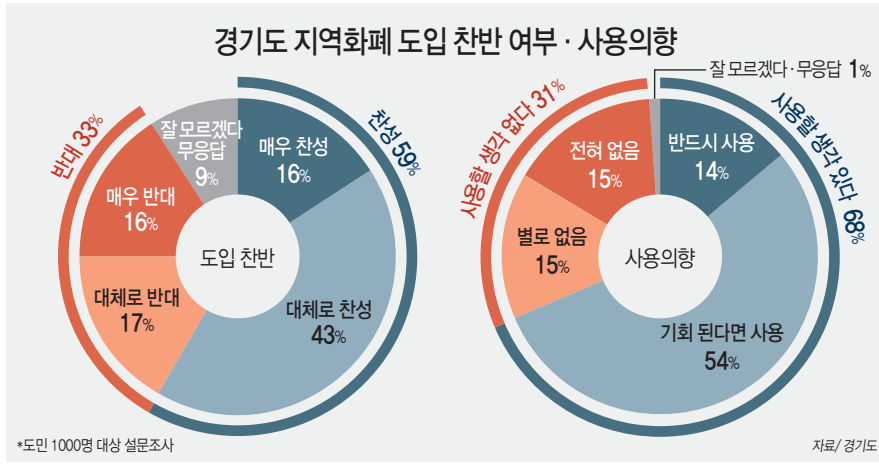
도민 10명 중 6명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찬성

지역경제 활성화·할인혜택 등에 68% '지역화폐 사용의향 있다' 발행형태 '카드·모바일형' 선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59%가 찬성했다. 이러한 찬성여론은 도내 모든 권역에서 과반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8%는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을 때 추가혜택이 있다면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화폐' 선택자의 69%는 추가혜택 수준에 대해 10%까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63%로 높게 조사됐으며,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4명 중 1명꼴인 27%가

'들어봤다'고 답해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 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

용할 수 없는 대안화폐이다. 도민들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일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수당으로 지원되어 시중에 유통된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겠나'는 물음에 6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된다'(51%)와 '할인혜택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40%)는 점을 높게 꼽았다. 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도민들은(31%) '다른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없다(28%)'는 점과 '지역화폐가맹점 부족(19%)',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제한'(16%) 순이다.

'지역화폐' 발행 형태로는 '종이 상품권'(16%)보다 '카드형 상품권'(39%)과 '모바일 상품권'(31%)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종이, 카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모두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들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시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높은 지지(71%)를 보였다. 이는 대기업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 운영자들은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운용으로는 '가맹점 확대'(31%)를 꼽았다. 그 밖에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혜택 강화'(20%), '부정사용 등 유통관리'(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9월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인천시-서울대, 로봇산업 육성 업무협약

예술과학센터, 이달 말 로봇랜드 입주 공연용 로봇콘텐츠 '드림로봇' 개발

인천시와 서울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로봇랜드 로봇타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로봇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장산업과에서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로봇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금년 상반기 서울대학교와 로봇랜드 내 예술과학센터 입주 및 로봇콘텐츠 개발, 로봇

과 예술분야 산학협력 등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오는 9월 말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가 인천로봇랜드에 입주해 공연용 로봇콘텐츠인 드림로봇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올해 11월 초부터 로봇타워 1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봇과 예술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대학교는 로봇랜드 내 체험형 공익시설을 포함한 로봇콘텐츠에 대한 기획 및 자문, 공동개발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국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

는 기관으로, 이번 서울대학교와 로봇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된 점은 인천입장에서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로봇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시민들이 로봇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2017년 7월 1단계 사업인 로봇타워 및 로봇R&D센터를 준공해 8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시설을 확대하는 테마+산업중심의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조성실행계획 변경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일대에서 12일 오전 아낙들이 쪽파를 심고 있다. 지금 심는 쪽파는 겨울 김장용 양념 채소로 출하된다. /양수녕 기자 ysn6313@

쪽파 심는 아낙들

영광군, 토지·주택 재산세 41.5억 부과

토지분 작년보다 3.7% 증가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4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약 1억 4500만원(3.7%)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위조명품 3.2억 판매·유통 19명 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724점 압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 시내 상가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3억 2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 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사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의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짝퉁 사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들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달미를 잡혔다.

의정부시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 목적으로 진열



적발된 위조 해외 명품 등 압수품. /연합뉴스

하다 단속에 걸렸다.

한편,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들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 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17일 시니어합창단 연주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서

광주시 북구가 무더위가 지나고 한층 선선해진 가을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마련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17일 오후 7시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어르신들로 구성된 '북구 시니어합창단(단장 이효상 부구청장)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선아 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연주회는 김근형씨의 피아노 선율과 함께 시니어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아 가을인가', '새야새야 파랑새야', '강원도아리랑' 등 3곡의 혼성합창을 시작으로 '스와니강', '사랑의 찬가', '아리랑'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시니어합창단의 멋진 화음으로 공연장을 채운다.

특히 각종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임현진씨가 '인형의 노래', '전애하는 나의 후작님' 등을 열창하며, 오페라에 대중음악을 가미한 팝페라 앙상블 '친친클래식'의 특별공연으로 이번 정기연주회를 한층 더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광주=봉태영 기자

"피톤치드 만끽... 편백나무 숲으로 오세요"

15~16일 '장성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편백나무 숲인 축령산에서 치유 및 힐링 기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장성군은 오는 15, 16일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 일원에서 제 11회 '장성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를 개최한다.

'장성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는 편백나무의 치유 및 힐링 기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장성군이 개최하는 축제로 음악회, 공연, 판매, 부대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음악회로는 가수 조항호씨, 소프라노 신은정씨,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병진씨, 배우 전원주·이동준씨가 출연하는 '녹색 음악회', 이색 악

기 연주자 장승일씨, 색소포니스트 오민석씨, 가수 변지훈·박현·임은산씨와 밴드 도시의 아이들이 출연하는 '산소 음악회', 가요제, 버스킹 공연 등이 마련돼 있다.

공연 행사로는 빅밴드 관현악단의 클래식 공연, 추억의 DJ쇼, 가수 안영진씨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판매장에선 숲속 식당, 숲속 주막, 숲속 먹거리, 야외 카페가 운영된다. 부대행사로는 건강걷기 행사, 어린이 백일장, 축령산 보물찾기, 숲치유사와 함께하는 축령산 등이 진행된다.

편백나무는 웰빙 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나무다. 편백나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나무보다 최대 4, 5배에 이르는 피톤치드를 내뿜기 때문이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 boy2020@